

기괴한 ~ 에이 고딕 서사시

GE 그레이븐 지음



제 12 장



프랑스 랭스 ~ 블라시 성 ~ 1348년 6월

6월의 늦은 오후, 타오르는 듯한 색채가 하늘을 물들이며 그림 같은 석양이 시작되었다. 블라시는 알사이의 위층 침실 창문 에 얼굴을 바짝 대고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의 입김이 유리에 맺혀 덩수룩한 수염 주위 에 불투명한 후광을 만들었다. 방 안에 남아 있는 끈질긴 여름 더위 속에서 땀방울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다리 전체에 움푹 패이고 변색된 흉터가 있었지만, 그는 다른 도움 없이도 굳건히 서 있었고, 전반적으로 건강해 보였다. 그의 옆에는 나무 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르네가 크레시에서의 마지막 공연을 며칠 앞두고 알사이에게 준 먼지 쌓인 종이꽃이 담긴 꽃병이 있었다. 너털너털해진 꽃잎들은 굽주린 나방들이 꽃을 갉아먹었다는 증거였다.

창틀 아래쪽에 말라붙어 한 줄로 쌓여 있다.

“저들은 마치 개미떼 같아. 누가 저들을 다 물어줄까?” 블라시는 멍한 눈으로 먼 곳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블라시 저택의 초입을 알리는 큰길에는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들이 끊임없이 줄지어 걸어가고 있었다. 블라시는 높은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바라보며 그들을 마치 유령 같은 곤충들이 끝없이 늘어선 행렬처럼 보았다.

도시를 벗어나 시골로 사라지는 사람들. 젊은이와 노인, 부자와 노인 모두. 가난한 남자, 여자,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마치 교수형을 선고받은 도시 전체의 마지막 발걸음처럼 밖으로 향하고 있었다. 대규모 탈출 속에서 대부분은 손에 진 얼마 안 되는 짐을 들고 걸어갔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걸어 다니는 죽음처럼 비틀거리며 나아갔다. 간혹 짐을 가득 실은 말이 끄는 수레가 북쪽으로 향하는 행렬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지나갔는데, 수레 바퀴는 길가에 널린 며칠 된 시체들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블라시는 창문에 맺힌 김을 닦아냈다. "온 마을, 아니 수많은 도시들을 묻을 만큼 축복받은 땅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 역병은 헤아릴 수 없는 광기일 뿐이다."

알사이가 그의 어깨 너머로 그를 불렀고, 블라시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다가오면 절대 들여보내지 마, 프랑수아. 우리 그들을 도울 수 없어. 그렇게 말해줘." "그들이 다가오면 절대 들여보내지 마, 프랑수아. 우리 그들을 도울 수 없어. 그렇게 말해줘."

너는 그러지 못할 거야!

"문과 창문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블라시는 얼굴을 유리창에 바짝 댄 채 담담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최대한 안전합니다."

잠시 후 알사이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제발 성에서 나가 달라고 부탁했잖아! 우리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어요. 도대체 왜 제가 당신의 말에 속아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불길한 징조 같아요!

블라시는 대답을 거부하고 대신 혼잡한 도로를 유심히 살폈다.

"아직 시간 있어, 프랑수아! 잘 들어봐. 마구간 뒤 숲 속에 풀이 무성한 길이 있어. 르네가 자주 그 길로 수레를 끌고 갔었지. 수레에 짐을 싣고 네 말을 연결하면 돼."

블라시는 그녀의 말을 끊고 말했다. "너무 늦었어, 알세."

"그건 아니야! 만약 마이클이 네 고집 때문에 죽는다면, 넌 그걸 견딜 수 있겠어?"

십자가요? 장 프랑수아 블라시 씨, 할 수 있겠습니까?"

블라시는 "그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안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관참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알새는 한숨을 쉬며 투덜거렸다.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야 가능하겠지. 부디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네."

블라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겁니다."

"게다가 프랑수아, 마이클에게 그 다루기 힘든 말을 타게 할 거라고 몰래 말하는 건 원치 않아. 내가 말했던 대로 다른 말을 남겨둬야 했어."

블라시는 미간을 찌푸리고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그 문제를 또다시 고민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래야만 해요!" 그녀가 소리쳤다. "당신이 그렇게 많은 비밀을 지키려면 그래야만 하죠. 제가 당신 오빠의 열렬한 아내이자 당신 조카의 사랑스러운 어머니였다는 걸 기억 못 하세요?"

내가 언제나 우리 집을 너에게 활짝 열어주지 않았느냐? 네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언제나 너를 돌봐주지 않았느냐? 나는 영국인이 아니다, 프랑수아. 그리고 나는 네 형제들을 죽이지 않았다!"

블라시는 빙글빙글 돌았다. 그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그렇지 않으면 내게 바라는 게 있겠어?"

"진실을 알고 싶어요!" 알새가 외쳤다. "제발 부탁이에요."

"아." 블라시는 고개를 숙이고 씩 웃었다.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건가?"

"네, 장 프랑수아가 블라시 추기경이 제게 숨긴 모든 진실을 말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가 제게 이 보잘것없는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블라시는 그녀의 단순하지만 겉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요청을 생각하며 방 안을 살살이 살폈지만, 어떤 방 안의 물건도 그의 시선을 사로잡아 그녀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었다.

간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입술을 깨물고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한숨을 크게 쉬었다. "굳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창밖을 응시한 후 말을 이었다. "진실을 알게 되시면,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했던 이유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새는 그를 나무랐다. "진실을 말해, 프랑수아."

블라시는 순순히 따랐다. "좋습니다. 모든 것은 아버님의 샤토 루즈에 있는 제 방, 제 아파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아주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죠." 그는 창턱에 기대어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고백했다. 자크의 영혼을 볼 수 있었던 행운, 외경에 들어가는 어려운 과정, 교황청이 숨겨둔 문석의 발견, 필립 왕과 클레멘트 교황, 그리고 대출을 포함한 교황의 계획, 본 대위와 보니히 수도원장, 그리고 가르디아 수도원에서 고된 생활, 마침내 문석이 열린 일, 그리고 끔찍한 부상과 본 대위의 말을 타고 수도원에서 간신히 탈출한 일까지. 블라시가 회상하는 내내 알새이는 그를 한시도 방해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블라시는 몸을 돌리며 말했다. "자, 다 들었습니다. 전부 다요, 알새이."

알새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옆 테이블을 가리켰다. "저기 있는 오래된 서류들 말이에요. 당신이 말하는 그 페이지들이 바로 저것들인가요?"

블라시는 테이블에서 몸을 돌려 죄책감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부분 그렇죠." 라고 인정했다.

"나머지는 바람에 날아가 버렸지." 그는 몸을 돌려 혼잡한 도로에 다시 시선을 돌렸다.

길 위에서. 그는 한숨을 쉬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알새이. 이제야 말하게 해서 미안하오." 블라시는 날카로운 질책을 예상하며 턱을 굳히고 몸을 뻗뻗하게 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무덤 같은 정적만이 감돌았다.

마침내 알새는 새로운 활력으로 오래도록 이어져 온 침묵을 깨뜨렸다. "마이클 목소리가 안 들려! 아마 밖에 있을지도 몰라. 저 사람들과 같이 있을 거야. 프랑수아!"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편히 쉬고 있어요." 블라시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아무리 안전해도 돼요." 그는 계속해서 창밖을 내다 보며 시선을 살짝 돌려 가지가 넓게 펼쳐진 오래된 포플러 나무를 바라보았다.

"훌륭해요," 그녀는 좀 더 편안한 목소리로, 어쩌면 약간의 여유로움까지 담아 대답했다. 유머. "프랑수아, 하루 종일 장난꾸러기였어. 나를 녹초로 만들었지. 정말 활기 넘치는 아이야. 아빠를 꼭 닮았어. 언젠가 어떤 행운의 아가씨 마음을 사로잡을 거야."
나에게. 그리고 그의 매력에 홀린 여자는 불행을 맞을 것이다."

블라시는 숨이 막혔다. 새로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수염 속으로 사라졌다. "우린 안전해." 그는 포플러 나무 아래 흙더미가 쌓인 작은 나무 표지석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는 바로 전날 소년을 묻었을 뿐이었다.
알새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당신이 자는 동안 빵집에 가서 갓 구운 빵을 사 왔어요. 배가 많이 고플 거예요. 접시가 가득 차 있거든요. 그리고 기뻐할 소식도 있어요. 당신 오빠가 저녁 식사에 함께할 거예요." 그녀는 킁킁 웃었다. "이번에는 해지기 전에 도착한다고 약속했거든요. 어머, 들어보세요! 지금 오고 있어요, 르네!" 알새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쉬셔야 해요. 음식과 물, 깨끗한 침대 시트를 가져다 드릴게요." 블라시는 창문에서 몸을 돌려 알사이를 바라보았다. 알사이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침대 가장자리에 축 늘어져 있었다. 가느다란 팔이 매트리스 위로 뻗어 허공에 떠 있는 모습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향해 손을 뻗는 듯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은 검었고, 미소 짓는 입술은 검고 메말랐으며, 멍한 시선은 천장의 주름 같은 것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다음 날, 블라시는 오래된 포플러 나무 아래, 새로 쌓인 흙더미 사이에서 고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알사이의 무덤 위에 삽으로 흙을 퍼 덮으며 한때 명문이었던 블라시 가문의 마지막 후손을 묻었다. 삽을 땅에 꽂고 발로 부러진 뿌리를 긁어내던 그는 성 정문 앞에 짐을 가득 실은 마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블라시는 눈부신 햇살을 가리며 초대받지 않은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병약해 보이는 행인들을 배경으로, 마부는 마치 뻘뻘한 관음증 환자처럼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천으로 완전히 덮여 있었고,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어두운 틈만 나 있었다. 마치 챙 넓은 모자를 쓴 미라 같았다. 마부는 긴 코트를 걸친 채 한낮의 태양 아래 앉아 있었다. 그의 불길한 모습과 얼굴 없는 표정 때문에, 만약 그가 대낮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더라면, 블라시는 그를 시체 수레에 앉아 있는 죽음의 신으로 착각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겉모습이 기이한 그 구경꾼이 더 이상 다가올 기미를 보이지 않자, 블라시는 그를 내쫓고 더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에 집중했다.

추기경은 나무 밑동에서 오래된 식초가 담긴 병을 꺼내 알세의 무덤에 갓 축성된 식초를 뿌리며 미카엘이 순진하게 했던 말을 읊었다.

다른 말로 여겨지는 것: 마침내 그의 말이 끝나자 블라시는 무릎을 꿇었다.

그는 그녀의 묘지 발치에 엎드려 기도를 마치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가시오, 알세 블라시. 르네 블라시의 사랑하는 아내이자 마이클 블라시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당신께. 아멘." 그는 십자가 성호를 긋고 조용히 경의를 표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 순간,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가운데, 여름 귀뚜라미의 단조로운 울음소리만 들리는 가운데, 가려움과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한낮의 더위 속에서, 자신의 처지가 서서히 드러나는 가운데,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어떤 간청도 영원히 귀먹고 죽은 자들의 귀에 닿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한 깨달음 속에서, 블라시는 울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흙더미 위에 엎드려 마치 누군가에게 이끌린 듯 흠을 한 움큼씩 긁어모아 덩어리로 뭉쳤다.

신성한 수단으로, 이 순간을 더욱 확고히 파악하는 것이 알사이를 압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녀의 시한부 인생. 그곳, 포플러 나무 아래, 더러워진 손과 흐느낌 사이에서 울부짖음이 흠을 적셨다. 그리고 그곳, 포플러 나무 아래에서 블라시는 압도적인 공허함에 잠겨,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슬픔이 뒤섞인 생각에 빠져들며 실망감을 곱 씹었다.

"좋은 오후 보내세요, Monsieur!" 예상치 못한 전화에 블라시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려던 그는 벌떡 일어나 아무것도 모르는 범죄자처럼 빙글빙글 돌며 눈을 비볐다. 그러자 곧이어 마부 와 흔들리는 마차가 다가왔다. 낫선 남자는 모자를 벗고 머리를 감싼 천을 풀고 긴 코트를 걸쳤다. 그는 햇볕에 얼굴이 검푸른 수염을 기른 중년 남성이었다. 눈 밑의 짙은 다크서클은 그가 지친 여행자임을 짐작케 했다. 마부는 천천히 다가오며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어떻게 가시죠?"

블라시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하며 명령했다. "말을 멈춰!" 그는 나무 아래에서 뛰쳐나와 옆으로 비켜서서 공터로 나왔다. "더 이상 오지 마!" 마부는 즉시 멈춰 섰고, 그의 말은 팽팽하게 당겨진 고삐에 저항하며 몇 번 고개를 끄덕였다. 블라시는 그에게 소리치며 성을 가리켰다. "이 영주의 주인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 당장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그의 손에 죽음을 당할 것이다!"

"제 이름은 장 라바투입니다." 마차 주인이 소리쳐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마르세유의 저명한 상인입니다. 영주님께 폐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만, 만약 허락해 주신다면 영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는 소매로 이마의 땀을 닦았다. "저는 악의를 품고 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기도와 선의를 전하러 왔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영주님께서 제 진심을 크게 감사히 여기실 것입니다."

블라시는 수레에 다가가 그를 유심히 살폈다. "선의를 분명히 밝히세요." 그 남자는 기침을 심하게 하며 고개만 끄덕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시늉만 했다.

그는 미루나무 밑동에 기대어 쉼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새 무덤을 파는군요." 그는 침을 꿀꺽 삼키고 목을 가다듬었다. "성스러운 땅이죠, 그렇죠?"

"C'est ainsi, 블라시는 "그렇다"고 확인했다.

"제대로 축복받았다는 건, 사제에 의한 축복이라는 뜻인가요?"

"C'était ainsi, " 그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남자는 코를 훌쩍이며 마치 자신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찾는 듯 주변을 꼼꼼히 살폈다. "이 땅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성스러운 곳인가요?" 그의 시선은 다시 나무에 닿았고, 그는 나무의 가장 높은 가지부터 뿌리까지 살살이 살펴보았다.

"됐어요.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인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가진 모든 물건과 간단한 서비스로 물물교환을 하고 싶습니다.

블라시는 성 입구를 슬쩍 훑어 보았다. "그는 나 외에는 아무와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제안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즉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고 싶습니다. 주인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남자는 얼굴을 찡그리며 덩수룩한 머리를 긁적였다.

그는 수염을 기르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선의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생각했다. "상인이 수레에 여러 계절 동안 영주에게 필요한 물건을 가득 싣고 도착했다고 전해주세요." 그는 어깨 너머로 수레에 실린 물건들을 훑어본 후, 오랜 세월 동안 교묘한 거래로 갈고닦은 노련한 상인답게 목록을 줄줄이 읊었다. "신선한 곡식, 말린 과일, 소금에 절인 고기, 과자류가 있습니다. 등유, 향료, 연고, 천, 가죽, 약품도 있습니다. 소금과 온갖 종류의 치료 및 치유 향신료도 풍부하게 있습니다. 냄비, 도자기, 그리고..."

은과 금으로 만든 고급 식기 세트도 있고, 프랑스 최고의 와인이 담긴 미개봉 통도 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블라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신의 말과 마차 위로 손을 내밀며 엄숙하게 말했다. "이 훌륭한 말과 튼튼한 마차도 주인께서 원하신다면 물물교환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주인께 전해 주십시오. 간단한 대가만 지불해 주신다면 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요구."

비록 그의 몸골은 좋지 않았지만, 상인은 교활한 추기경의 집중력을 사로잡을 만큼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블라시는 말의 다리, 이빨, 눈을 살펴보고, 그 말은 흠잡을 데 없는 털을 가진 훌륭한 젊은 근육질의 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햇빛에 비친 털은 마치 붉은빛 광택을 내는 듯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의심을 품었다. "단순한 부탁이시여, 대체 무엇입니까?"

남자는 수레 안에서 몸을 움직였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말했다. "전염병에 걸렸 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는 대신, 제대로 묻힐 수 있는 신성한 땅만 조금이라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라시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나 손가락을 모아 쥐고 그 특이한 상황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는 포플러 나무 무덤과 병약한 상인을 번갈아 쳐다본 후, 병든 낯선 이방인의 제안을 거절하려 애썼다. "나는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그 남자는 끼어들며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원 뒤쪽을 가리키며 "저는 성 밖 마차 안에서, 저기 숲 가장자리 근처에 머물 수 있습니다. 아무런 보살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천으로 목을 닦으며 간청을 이어갔다.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하루만 더 있으면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제 이름을 새길 비석 하나조차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성스러운 땅에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됩니다."

블라시는 상인의 수레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수레에는 상당한 양의 짐이 실려 있었고, 원래 디자인과는 상당히 달라 보였다. 수레 사방에는 높이 솟은 여러 개의 판자가 끈으로 묶여 있었고, 각 판자에는 금속 고정 장치가 달려 있었다. 그 고정 장치에서 밧줄이 여러 가닥으로 얽혀 있었고, 수레 안에 뽁뽁하게 쌓인 식량 더미 사이로도 지나가고 있었다. 수레 바퀴가 어떻게 저렇게 무거운 짐을 지탱하는지 궁금했던 블라시는 바퀴의 폭이 비정상적으로 넓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의 시선은 삼베 자루 더미 뒤에서 살짝 빠져나온 듯한 작은 와인 통의 가장자리에 멈췄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어깨 너머로 성 뒤편, 무성한 잡초밭 너머, 그리고 더 멀리 보이는 숲을 바라보았다. 숲은 영지 경계를 어둡게 표시하고 있었다. 블라시는 다시 남자에게로 돌아서서 밝은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상인의 제안이 진심임을 직감한 것이다. 결국 죽음은 마치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한 듯, 남자의 불안에 가득 찬 시선 속에서 완전히 무의미한 듯 보였다. 블라시는 그 징후와 표식을 알아차렸다. 운명과 필멸, 그리고 전반적인 어둠의 기운이 마치 검은 광채처럼 남자의 존재를 저주하는 듯했다.

추기경은 그가 오래된 나무로 돌아오자 손짓으로 앞으로 나오라고 했다. "수레를 숲 가장자리로 옮겨라." 그는 삽을 집어 들고 성의 뒷문 쪽으로 걸어가며 외쳤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거기 서 있어야." 마부는 그의 말에 따랐고, 수레를 조심스럽게 몰아 무성한 잡초를 헤치고 키 큰 갈색 갈대밭을 지나갔다. 갈대밭은 바퀴 아래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블라시는 성 안으로 들어가 벽난로와 부엌이 있는 공간으로 들어섰다. 그는 삽을 구석에 세워두고 문을 닫았다. 그는 일어서서 목덜미의 땀을 문질렀고, 그를 감싸는 구토와 담즙의 악취를 애써 무시했다.

그는 임종을 앞둔 새로운 손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 손님은 다가오는 겨울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만큼 많은 식량을 싣고 있었다. 블라시는 역병이 인근 도시 랭스를 휩쓸고 있는 지금, 그 남자가 수레에 싣고 있는 식량이 마을 모든 상점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그 상인이 약속했던 모든 것을 고려해 보더라도,

그에게 있어 와인 통은 유혹적인 영약처럼 가장 먼저 떠올랐고, 블라시는 그것이 그가 괴로운 기억들을 잊기 위해 술로 달래려 한다면, 그것은 그의 임시적인 삶의 필수 요소가 될 것이다. 미카엘과 알세. 음식이나 삶 그 자체보다도, 와인은 그의 죄책감을 잠재우고, 비록 짧은 시간일 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덜어주기에 충분했다.

그는 신음하며 흩어진 쓰레기를 발로 차면서 얼룩진 창문으로 다가갔다. 파란색과 초록색 파리 떼를 향해 손을 휘저으며 때로 얼룩진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줄기로 뒤덮인 들판 너머로 상인의 집 중 가장 윗부분이 뒷쪽 숲 가장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누군가 움직였고, 블라시는 그 남자가 수레 위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무성하게 자란 땅을 살피는 듯했다. 블라시는 비웃으며 상인에게 속삭이듯, 고고한 태도로 말했다. "오, 죽어가는 자여, 죽음의 전능함을 느끼지 못하는 건가?"

숨 쉬는 매 순간마다 죽음이 스며들어 있지는 않나? 도처에 존재하며,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순간에 점점 더 쇠퇴해 가는 죽음의 기운이 도사리고 있다. 죽음은 불멸이며, 우리 모두를 뛰어넘어 영원히 남을 삶의 핵심이다." 그는 술 취한 사람처럼 낄낄거리며 창가에서 비틀거리며 멀어져 갔다.

블라시는 어수선하게 널브러진 바닥을 응시하며 미소를 지었던 얼굴이 점차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미간은 찌푸러졌고, 턱은 굳어졌다. 멀뚱한 한쪽 눈은 바닥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때서야 그는 주변을 가득 채운 역겨운 냄새를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제야 방 한가운데 놓인, 마치 그림 같은 정물화를 발견했다. 거칠게 다듬은 커다란 탁자와 그 위에 놓인 적나라한 물건들 이었다. 탁자는 마치 오랫동안 사용된 제단처럼 보였고, 더러워진 천들이 위아래로 쌓여 있었다. 핏자국과 다른 체액 들이 천을 딱딱하게 굳혀 불규칙한 형태로 만들어 놓았다. 그 한가운데에는 블라시가 열을 씻어내려 애썼던 흔적처럼 굳은 나무 세숫대야가 놓여 있었다. 파리들이 가장자리에서 웅웅거렸고, 블라시는 입술을 꼭 다물고 그 조잡한 광경을 응시했다.

“안 돼!” 그는 쓰레기 더미를 헤치며 소리쳤다. “너희는 절대—”

블라시는 탁자 가장자리를 붙잡고 힘껏 잡아당겼고, 그릇이 바닥에 부딪히며 탁자가 옆으로 넘어졌다. 파리 떼가 날아오르고 방 안은 일정한 웅웅거림으로 가득 찼다. "절대 안 돼!"

그는 뒤로 뛰어오르며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 방의 벽과 천장을 미친 듯이 살폈다. 블라시는 팔을 활짝 벌리고 빙글빙글 돌며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웃고 소리쳤다. "날 봐! 난 아직 여기 있어! 너희는 아무 짓도 못 했어! 날 건드릴 수 없어! 너희는 날 두려워하는구나! 너희는 절대—"

블라시는 파리를 쫓으려고 손을 마구 휘두르다가 쓰레기 더미에 발을 헛디뎠다.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히는 바람에 정신이 멍해졌다.

그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고, 마이클의 목소리가 그의 마음을 맴돌았다. '나는'

"천사가 되어서 날개를 달고, 정말 정말 빨리 날 거야. 악마가 날 잡을 수 없을 거야!" 블라시는 신음하며 눈을 떴다. 얼굴 옆에는 손이 있었고, 굵은 손가락 마디 위에는 파리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잠시 동안 그는 돌바닥에 누워 파리가 다리를 비비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커다란 진홍색 눈이 그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다 파리는 날아올라 그의 얼굴 앞을 맴돌았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미카엘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마치..."

"이거 봐, 프랑수아 삼촌! 바람 같지 않아? 내가 얼마나 빠른지 봐!" 파리는 잠시 블라시의 얼굴에 앉아 코끝에서 떨어지는 새로운 눈물 자국을 살폈다.

한때 탐냈던 블라시 저택의 황량한 별판에 누워 파리 떼의 웅웅거리는 소리 아래, 추기경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영역으로 빠져들었다. 그곳은 우울함, 혐오감, 혼란이 왜곡된 기억과 불안한 꿈과 뒤섞여 겉으로는 기괴하고 부자연스럽게 융합된 병적인 자기만족, 기괴한 냉소, 그리고 터무니 없이 부조화스러운 기억과 성찰의 혼합물을 드러내는 곳이었다. 이 모든 것은 비참한 광기의 고요한 검은 웅덩이에서 솟아나와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곳에는 날카로운 기억이나 감정은 없었다.

나무가 갈라지거나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비슷한 소리만 들릴 뿐, 무언가가 부서지는 듯한 쿵, 퍽, 찢어지는 소리, 짤랑 거리는 소리조차 없었다. 오직 완전한 침묵만이 감돌았을 뿐이었다. 죽음과 같은 고요함과 순수한 초월적 상태 속에서, 블라시의 정신은 아주 조금씩이나마 흔들리기 시작했다.

추기경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꺾꺾 웃으며 바닥에 벌떡 앉았다. 험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하고는 방 벽을 훑어보았다. 그의 눈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멍하니 이리저리 굴러다녔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 겠다." 그는 일어서서 바지 자락에 묻은 흙을 털어냈다. "정말 그렇다." 그는 허리에 손을 얹고 벽을 향해 말을 이어갔다. "너희는 내게서 그것들을 빼앗아 갔지. 가장 내밀한 상실감으로 나를 괴롭히고 싶었기 때문이야. 다른 모든 이들이 이 세상의 역병에 굴복할 때, 너희는 나를 그 역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었지. 내가 너희에게 평생토록 슬픔을 안겨줄 수 있도록, 너희가 영원히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나를 살려두고 싶었기 때문이지." 그는 짜증스럽게 손을 흔들며 벽을 떨쳐내고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내 곁에서 사라져라 —오, 죽음과 암울한 절망이여— 잠시 동안일지라도, 내게는 진짜 손님이 기다리고 있다."

그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알현을 앞둔 점잖은 고위 인사처럼 자신의 모습을 점검한 후, 은은한 미소와 치켜 올라간 눈썹, 그리고 살짝 치켜든 턱을 한 채 성 밖으로 걸어 나왔다.

블라시는 키 큰 잡초 사이를 헤치고 나아가 그 한가운데 멈춰 서서 상인을 부르며 손짓으로 오라고 했다. "자네와 자루를 성의 뒷문으로 가져오게 하네! 주인께서 자네의 제안을 받아들이셨네. 숙식과 장례를 치르는 조건으로 와인과 식량을 내놓게 하셨네!"

상인은 고개를 저었다. "주인님께서 집에 역병을 불러들이실까 봐 제가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블라시는 그가 수레에서 내려와 사탕수수밭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목소리만이 그의 행방을 알려주었다. "주인님께서 원하신다면, 병사들이 수레에서 짐을 내리는 동안 저는 이 나무 아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블라시는 반갑게 손짓하며 외쳤다. "머릿속에 남아있는 악령도, 당장 닥쳐올 죽음의 손길도 그에게는 시급한 문제가 아니에요."
집주인 Accueillir, Monsieur Labatut!"

귀뚜라미 소리만 들릴 뿐, 잠시 동안 들판은 고요했다. 그러자 상인이 블라시에게 물었다. "저 사람 도 죽어가고 있는 건가요?"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과 당신의 수레를 가져오십시오. 그래야만 그가 당신의 요청을 들어줄 것입니다." 블라시는 잡초 너머로 그 남자가 수레에 올라타 자신 쪽으로 몰고 오는 것을 보았다.

"주인님 집에 제사장이 있습니까?"

"그는 당분간 당신의 필요를 돌봐줄 겁니다." 블라시는 뒷문으로 돌아가며 그에게 성 쪽으로 손짓했다.

"당신이 그 신부님이십니까?"

블라시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어깨 너머로 소리쳤다. "짐작하셨겠지만, 저는..."

오전입니다. 요즘 저는 축성, 사죄, 그리고 임종 예식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오십시오! 빈 방이 있고 포도주가 마시고 싶습니다.

상인은 수레를 입구 옆에 세웠고, 두 사람은 수레에서 짐을 내리기 시작하여 저택의 부엌 쪽으로 옮겨 쌓았다. 거의 모든 식량을 집 안으로 옮기고 나자, 상인은 어깨에서 곡식 자루 하나를 꺼내 블라시가 쌓아 놓은 비슷한 자루 위에 올려놓았다. 상인은 쓰러진 탁자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불평했다. "내 수레에서 짐을 내리는 게 거래 조건에 포함되는 줄은 몰랐군." 그는 집 안쪽과 위층으로 이어지는 통로들을 둘러보았다. 한숨을 쉬며 이마의 땀을 닦고는 블라시에게 물었다. "주인님 하인들은 어디 있는 겁니까? 말도 안 돼요. 자고 있는 겁니까? 이 식량들을 옮기느라 죽을 것 같아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얼굴을 찡그렸다. "그리고 여기는 또 뭐죠? 이 악취, 이 쓰레기들... 주인님은 어떻게 이걸 허락하시는 겁니까?"

상인은 파리가 들끓고 더러워진 리넨을 훑어보고는 블라시를 향해 돌아서서 그를 유심히 살폈다. "죽음이 이곳을 휩쓸고 지나갔군. 자녀가 이 성에서 유일한 생존자이지, 그렇지?"

블라시는 그에게 다가가 탁자에 기대어 고개를 저었다. 그는 상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죽음은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실, 군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스승님은 여기 계시다."

그는 "기침이나 재채기 소리도 안 들리는데, 이 성가신 파리들 말고는 생명의 흔적이 전혀 없어" 라고 반박했다.

그는 입술을 꼭 다물고 손을 흔들며 "당신이 그 스승님이십니까?"라고 물었다. 블라시는 껄껄 웃었다. "나 자신도 어찌나 유명하면서도 신비로운 존재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는 엄숙한 의심의 표정을 지으며 방을 둘러보고는 상인에게 속삭였다. "주인님께서 지금도 우리 말을 듣고 계십니다."

남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방 안을 훑어본 후, 목소리가 멀리까지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평생 동안 왕들과 그들의 측근들과 거리낌 없이 어울려 다녔습니다." "가신들이죠." 그는 허리에 손을 얹고 벽을 향해 말했다. "저는 장 바티스트 라 바투, 동방 수입 중개인입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자 그는 블라시에게 속삭이듯 물었다. "주인님 이 말씀하신 대로 유명하시다면 제가 아는 이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몸을 더 가까이 기울였다. "그분의 직함은 무엇입니까?" 블라시는 남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오, 그분은 누구나 다 아는 분이시죠. 곧 그분을 알현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른 손님들과 마찬가지로, 그분도 당신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계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와인을 마시러 가시죠." 그는 남자를 재촉했고, 두 사람은 성 밖으로 나섰다.

추기경은 마차를 돌아 술통에 희미하게 새겨진 휘장을 살펴보고, 그때 상인이 다가왔다. "어찌하여 그의 직함조차 그토록 비밀스러워서 내게 속삭여 줄 수도 없는 겁니까?"

블라시는 어깨를 으쓱했다. "비밀도 아니지. 스승은 여러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의 진짜 이름은 "죽음이로군." 그는 다시 술통으로 시선을 돌리며 덧붙였다. "흔하면서도 고귀한 이름이지. 어떻게 생각해?"

상인은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뒤로 물러섰다. "내 처지를 고려했을 때, 신부님이 하신 말씀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에게 악감정은 없습니다." 블라시는 나무 아래 두 무덤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그 무덤들을 모욕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제가 목격할 수밖에 없는 것만 볼 뿐입니다. 사실 저 나무 아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무덤들이 보입니다. 제 형제들이 크레시가 아닌 베다니에서 용감하게 전사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얼굴을 꿈속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랭스 거리를 여행하며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도 그렇고, 저는 이제 또 다른 한 명을 물어야 합니다."

"이 지친 다리를 좀 쉬게 하고 와인이나 한 모금 마시고 싶지만, 이렇게 푹푹 찌는 더위 속에서, 와인통은 아직 수레에 실린 채로, 내가 그토록 혐오하는 주인, 바로 죽음을 접대하고 있다니." 블라시는 툭툭거리며 수레에 올라탔다.

라바투트는 그를 따라가며 "당신의 형제들은 나무 아래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아니. 죽음은 나무 아래에도 있고, 도처에 있어. 주인님께서나마저 데려가셨으니, 나도 죽었어." 블라시는 신음하며 술통을 살짝 옆으로 기울여 지시를 내렸다.

상인은 술통을 조심스럽게 옮기라고 당부하며 말했다. "자, 살살 다뤄야지, 안 그러면 도망갈 거야." 그때 갑자기 말이 덜컥거리며 마차를 흔들었고, 상인은 술통에 부딪혔다. 술통은 마차 뒤쪽으로 굴러갔고, 블라시는 재빨리 상인 위로 뛰어올라 술통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다. 그는 술이 바닥에 가라앉을 때까지 술통을 붙잡고 있었다. "살살 옮긴다고 했잖아! 넌 소처럼 걷는군!" 그는 상인의 가련한 얼굴을 노려본 후 술통 위에 머리를 얹었다. 그리고는 심호흡을 했다. "잠깐 이성을 잃었군. 용서해 줘, 장바티스트. 그저 내 잘못일 뿐이야."

걱정되는 점은, 말씀하신 대로 이 와인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상인은 눈에서 땀을 닦고 수레 뒤쪽으로 기어가며 말했다. "이건 프랑스에서 가장 훌륭한 와인입니다." 그는 블라시 옆에 멈춰 서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그리고 제가 목격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죽은 신부가 이 특별한 와인을 몹시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 와인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블라시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남자는 맥주통을 옮기면서, 수레에 받침대 두 개를 대고 맥주통을 내려놓는 작업을 했다.

라바투트는 판자 하나의 높이를 조절하며 기침을 참았다. "전염병에 걸린 나를 아시 면서도 당신은 내게서 멀리 떨어지지 않으시군요.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신 것 같군요, 그렇지요?"

블라시는 가만히 서 있었다. 그는 턱수염을 굵적이며 생각에 잠겼고, 잠시 손가락을 살피본 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군. 그리고 방금 전 내가 목격했듯이, 아주 작은 천사가..."

"그가 내 손에 내려와 모든 것을 말해 주었지." 그는 수레 뒤쪽에 기대앉아 손가락 마디의 굵힌 상처를 뜯어 보았다. "그때 나는 어려운 질문에는 어려운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질문들이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단지 그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가 답변에서 기대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대는 종종 우리가 질문에 대한 신뢰할 만한 답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결정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인이 인정했다. "저는 그저 간단한 질문을 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왜 주변 사람들처럼 죽지 않는 겁니까?"

블라시는 카트에서 물러나 두 손을 내밀며 웃었다.

"보세요? 당신조차도 질문에 대한 답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당신이 그 너머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대하는 모습.

라바투트는 미간을 찌푸렸다. "알겠는데, 당신은 말을 돌려 말하는 연습을 하거나, 내 말에 대답하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군요."

"아!" 블라시는 손가락을 허공에 가리키며 소리쳤다. "당신은 스스로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았지만, 그걸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잖아요."

상인은 콧방귀를 꺾으며 수레에 기대섰다. "그래서 어느 쪽이 진실이라는 겁니까? 내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하는 겁니까?"

“아니, 뒷부분이 사실이야. 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말이지.” 블라시는 입술을 꼭 다물고 얼굴을 찡그리며 말을 이었다. “당신이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죽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당신은 내가 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당신은 내가 살아 있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 알겠어? 내가 말했듯이,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게 아니야.” 그는 웃었다. “그 죽은 자는 다시 죽을 수 없다. 두 번째 죽음은 없다.”

라바투트는 수레에서 일어섰다. “농담하시는 거 아니죠? 정말로 하시는 말씀을 믿으시는 거죠?”

“보세요? 답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다만 당신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을 뿐이죠.” 블라시는 고개를 끄덕이며 윈크했다.

상인은 블라시를 내보내고는 땀방울이 맺힌 이마를 닦아내며 말했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군. 난 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자네는 술이 필요한 게 분명해. 와인 통도 옮겨야 하고, 장례도 제대로 치러야 하니, 갑시다.”

두 남자는 조심스럽게 술통을 부엌으로 옮겨 방 가장 안쪽 구석에 똑바로 세웠다. 상인은 숨을 헐떡이며 술통 위로 몸을 숙였다.

블라시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아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럴 때 궁궐 시종들은 어디 있는 거야?”

상인은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어떤 기사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블라시는 고개를 저으며 어깨를 문질렀다. “기사들이 있든 없든, 우리가 그걸 옮겨야. 우리 그게 필요해.”

“우리요? 당신들이 그걸 필요로 하잖아요.”

블라시는 벽에서 물러나 허리를 굽히고 바지 자락을 걷어 올린 후, 무릎 옆에 박힌 와인통의 가시를 빼냈다. 그는 상처를 굽적이며 말했다. “아니, 친구. 죽음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마지막 순간이지. 그때가 되면 넌 이 와인을 애원하게 될 거야.”

상인은 얼굴을 찡그리다가 몸을 곧추세우고는 드러난 다리를 살펴보았다. 다리의 피부는 두 겹고 움푹 패였으며 심하게 변색되어 있었다.

블라시는 무릎에서 가시를 빼내고 엄지손가락을 활아 흐르는 피를 닦아냈다.

그는 일어서서 상인의 역겨운 표정을 발견했다. “그냥 가시였을 뿐이야. 난 살 수 있어.” 블라시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상인이 대답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럴 겁니다.”

블라시의 미소가 사라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말은, 당신은 우리보다 오래 살도록 축복받았는지 저주받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상인은 자신의 다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다른 사람이라면 죽었을 화상을 보세요.”

“그런데 자네는 지금 나와 함께 있고, 전염병이 자네 곁에 있는데도 죽음보다 가시 하나 낀 것에 더 신경 쓰는군.” 상인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에게는 필멸의 존재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 같군. 자네는 누구인가?”

블라시는 씩 웃으며 눈썹을 치켜올리고는 신비로운 척했다. “아마도 천사의 축복을 받은 걸지도 모르죠?” 그는 상인의 어깨를 토닥이며 안심시켰다.

그를 계단 위로 배웅하며 말했다. "주님만이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이제 제가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래층과는 달리 말이죠."

위층 침실은 깔끔하고 깨끗하군." 그는 껄껄 웃었다. "전반적으로 이곳은 천국과 지옥이 한 집에 뒤섞인 것 같군." 상인은 계단에 서 멈춰 서서 그를 바라보려 했지만, 블라시는 그를 밀치며 위로 올라갔다. "걱정하지 마시오. 약속대로 당신을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장례식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제대로 치러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쉬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좋은 술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죠."

시간이 흘러 블라시는 임종을 앞둔 손님을 알사이의 위층 침실에 머물게 하며 극진히 대접했다. 상인은 잠이 들었고, 블라시는 마구간 옆에 수레를 세워두고 새로 얻은 말을 돌보았다. 그는 말에게 먹이와 물을 주고, 한때 길들여지지 않은 검은 말이 탈출했던 마지막 마구간에 말을 가두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등불과 별빛 아래 블라시는 성으로 돌아왔다. 그는 기름등잔에 불을 붙이고 술통을 두드려 두 잔의 술잔과 나무 세숫대야에 담긴, 말 두 마리도 취하게 할 만큼 충분한 양의 와인으로 잠든 손님을 깨웠다.

블라시는 세숫대야와 와인잔을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오후 내내 푹 잤잖아. 기분은 어때?"

남자는 침대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마치 짓밟힌 것처럼..."

"약마 그 자체였어." 그는 신음하며 말했다. 땀방울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우리가... 하는 꿈을 꿔." 내 무덤을 파고 있었어. 그런데 흙을 잃어버렸지. 내 흙을 찾고 있었는데. 맵소사." 블라시는 그가 여전히 흙을 찾는 듯 방을 훑어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다 세면대 와 잔들을 발견했다. "와인을 따셨습니까?"

"네. 그러시죠?" 블라시는 손님맛이를 하며 빈 잔 두 개를 모두 가져와 하나를 손님에게 건넸다.

"아마 잠시 후에요." 남자는 목을 문지르며 침을 꿀꺽 삼켰다. 그의 얼굴은 고통스러운 듯 일그러졌다. 블라시는 두 잔의 잔을 세면대 옆에 다시 놓고 창가로 다가갔다. 그는 두 손을 등 뒤로 깎지 끼고 앞길을 응시했다. 멀리서 여러 개의 햇불이 일렬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마치 랭스에서 계속되는 대규모 탈출을 보여주는 나쁜 불의 유령 행렬 처럼 어둠 속에서 천천히 떠다니는 듯했다.

"당신 이름이 라바투트라고 하셨죠?" 블라시가 물었다.

남자는 기침을 하고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장 라바투."

"제가 기억하는 것 같은데요." 블라시는 몸을 돌려 상인의 부츠를 응시했다. "마르세유에서 오셨다고 하셨죠?"

"마르세유요, 네."

"말해 보시오, 이 와인은 어떻게 구하게 되셨소?" 블라시는 세숫대야를 가리키며 물었다.

"

저는 아비뇽 출신이지만, 원래는 마르세유에서 살았습니다. 전염병이 처음 발생했을 때 마르세유를 떠났습니다.

“아하!” 블라시는 손가락을 튕기며 말했다. “당신이 바로 장 바티스트 라바투트군요. 아비뇽의 상인이었는데, 가게가 대장간 맞은편, 쿠리아 묘지로 이어지는 골목길에 있었죠?”

“저는—네. 어떻게—”

블라시는 씩 웃으며 침대 가까이 다가가 수염을 쓰다듬었다. 마치 어떤 수수께끼를 푸는 듯했다. “그리고 당신의 충실한 마차 전령들은 마르세유 항구로 정기적으로 왕복하며 제 노바 상선들과 비밀리에 와인 통을 교환 했죠.”

카파에서 들어와 제노바로 향하는 수입품에 대한 교환.”

“우리가 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상인이 물었다.

“하지만 그냥 와인이 아닙니다.” 블라시는 그의 질문을 무시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최고급 포도로 만든 천상의 발효 와인입니다. 이 오크통들은 교황 성하의 소박한 거처인 아비뇽 교황궁의 대형 와인 저장고에서 직접 가져온 것입니다.” 블라시는 껄껄 웃었다.

“이걸 어떻게 아셨죠?” 상인은 침대에서 몸을 움직이며 점점 커지는 불안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추기경은 연설을 이어가며 자신의 주장을 더욱 강조했다. “제노바 사람들이 배들을 비교할 때 수많은 차이점을 알아차리지 못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역했는지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궁궐 재고 기록 담당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와인 통이 없어진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블라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물론, 배에 실린 상품의 일부든, 교황의 와인 통의 일부든 처음에는 재고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사제가 아니군요. 대체 누구십니까?” 상인은 그를 노려보았다.

“사실 저는 추기경입니다.”

“그리고 난 하늘을 나는 말이지.” 남자가 쏘아붙였다.

블라시는 웃으며 말했다. “웁시기 전에 통에 새겨진 표시를 알아봤습니다. 제가 항상 와인 통 옆면에 새겨놓고 당신네 운반책들이 가져가도록 따로 표시해 두던 바로 그 표시였죠. 저는 그 해 최고의 통에 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검증된 파트너였던 것 같군요. 우리 둘 다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였죠, 안 그래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만나게 된 것은 유감스럽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마침내 얼굴을 마주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각하? 장 프랑수아 블라시 추기경님이십니까?” 남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블라시는 손바닥을 밖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을 들었다. “바로 저입니다. 예전에도 충실하게 와인을 공급해 드렸던 분으로, 다시 여러분을 위해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상인은 껄껄 웃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내 고백의 일부를 알고 있는 것 같군요.”

"내가 말하기도 전에 말이야."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나는 종종 그 추기경이 내가 트레이드했던 외국인 선수들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했지."

블라시는 근처 꽃병에서 긴 줄기의 종이꽃을 꺼내며 눈썹을 치켜 뜨고 대답했다. "아시다시피, 추기경단은 생각이 제각각인 집단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충실한 지지를 얻어야 하죠. 선물 같은 것들이요. 추기경단의 일원으로서 말입니다.

상인님, 제 말뜻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블라시는 꽃을 빙글빙글 돌리며 씩 웃었다. 그리고 그에게 윙크를 했다.

상인은 꺾꺾 웃으며 말했다. "당신도 그 일에 연루되었으니 나나 다를 바 없소."

"그리고 저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절은 이미 지나갔고, 우리의 행적은 기록 없이 오래전에 묻혔습니다. 오늘날에도 영광스러운 교황청도, 권위 있는 제노바 귀족도 아무런 미스터리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둘 다 모든 것을 과도하게 누리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추기경은 힘없이 미소 지으며 손가락으로 꽃잎을 살피보았다. "모든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무관심과 맹목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블라시는 시든 꽃잎 냄새를 맡으며 먼지를 불어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비슷한 불행을 겪은 것 같군. 자네는 내가 알던 부유한 상인이 아니고, 나 또한 자네가 기억하던 영리한 추기경이 아니지." 그는 꽃을 바닥에 던지고 두 손을 등 뒤로 깎지 켜다. 그리고는 발뒤꿈치를 들썩였다. "아, 그런데 자네가 밀수해 온 제노바 산 물건 중 하나가 지금 폐하의 궁전에 있다는 사실이 좀 재밌게 느껴질지도 모르겠군. 달걀을 삶는 데 쓰는 꽤 특이한 삼각대 인데, 그 안에는 파란 용이 그려진 기름 램프 두 개가 들어 있지."

"그런 장치가 기억나네요. '달걀 창'이라고 하는데, 폐하께서 직접 이름을 붙여주셨죠. 지난번 마르세유에 갔을 때 세 개나 봤습니다. 제 전령이 그것들이 아주 귀중하다고 해서 거래에 받아들였더군요. 상인은 침대 머리맡에 베개를 쌓아 올리고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았습니다. "그럼, 왕께 드리는 선물이었군요?"

블라시는 사이드 테이블로 다가갔다.

"정확히는 아니고요, 일종의 교류라고 할 수 있죠."

"무엇 때문이에요?"

블라시는 웃으며 말했다. "굳이 알고 싶으시다면, 군대를 확보하기 위해서죠."

"군대라고요?" 남자는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난 불타는 듯한 붉은 말이지. 그러니, 모든 걸 다 말해 보세요."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리면 당신은 분명 믿지 않으실 겁니다." 블라시는 두 잔의 잔을 세숫대야에 담갔다. "이제 와인을 한 잔 마셔도 될까요?"

그는 상인에게 후한 대접을 베풀었고, 상인은 잔을 받아 들며 말했다. "그래, 열도 싹 가시고, 하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죽음까지도 쫓아낼 수 있겠군." 그는 블라시에게 건배를 하고 잔의 절반을 단숨에 마셨다.

“으악!” 상인이 으르렁거렸고, 술이 그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렸다. 블라시는 자신의 잔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한 모금 마셨다. “스스스하군.” 블라시는 입맛을 다시며 불평했다. “술이 얼마나 오랫동안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어 있었던 거지?”

"아비뇽에서요. 아비뇽에 역병이 닥쳤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갔습니다." 수레에 짐을 싣는 중이었는데, 술통 뚜껑을 덮는 걸 깜빡했어." 남자는 소매로 입술을 닦았다. "햇볕이 그것을 죽였다" 고 블라시는 결론지었다.

상인은 잔에 남은 술을 꿀꺽꿀꺽 마시고는 탁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 잔을 다시 채웠다. "죽어가는 사람은 음미하려고 술을 마시지 않지." 그는 베개에 기대앉으며 다시 한번 추기경에게 건배했다.

블라시는 잔을 들어 올리고는 굳은 표정으로 남은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죽은 자도 그러지." 그는 신음하며 말했다. 그 역시 잔을 세숫대야에 담가 와인을 다시 채웠다.

"설마 정말 죽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상인이 껄껄 웃으며 물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엄숙한 눈빛을 마주했는데, 그 눈빛은 꽤 진심 어린 것이었다.

그의 미소가 사라졌고, 그 순간 라바투트는 아마도 지금 자신 위에서 서 있는 사제에게서 광기의 씨앗을 보았을지도 모른다. 상인은 시선을 돌려 검은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중얼거렸다. "글쎄, 나도 결국엔 당신처럼 죽기를 바라는 건 인정합니다." 그는 사제를 향해 건배하고는 술잔을 단숨에 비웠다. 그리고는 잔을 다시 술잔에 담갔다. 그는 신음했다. "상태가 악화되는군." 그는 땀을 닦고 베개에 깊숙이 파고들어, 마치 잠자리 이야기를 기대하는 어린아이처럼 두 손으로 잔을 감싸 쥐고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 당신이 확보한 군대에 대해, 그리고 내가 믿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말해 보시오. 아, 그리고 다리 부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블라시는 몸을 돌려 방을 서성이며 침대 발치에 멈춰 서서 종이꽃을 납작하게 밟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바닥을 뚫고 과거를 들여다보는 듯했다. "음, 짐작 가는 게 있네."

이제 상관없어. 죽은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고백할 수 없을 만큼 신성한 비밀은 아니잖아."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잠시 더 서성거렸다.

상인은 재촉했다. "어서 어서 해 보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죽어가는 상인이 죽은 추기경이 고백하기도 전에 죽게 될지도 모르오!" 블라시는 획 돌아섰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킬킬거렸다.

"좋습니다." 블라시가 말했다. "처음은 아비뇽의 샤토 루즈 에서 시작됐습니다. 거기서 저는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블라시는 잔을 든 채 방을 서성이며, 죽은 형의 유령과 나눈 은밀한 대화, 그리고 동료 추기경을 살해하는 것을 꺼렸던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상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교황청으로부터 놀라운 비밀을 캐내다 — 지옥으로 통하는 문들의 작동 원리를 묘사한, 삼엄하게 경비되는 문서들을 훔치기 위한 그의 교묘한 속임수 — 그리고 그의 탁월한 기술 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교황을 상대로 음모를 꾸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감옥에 가게 되었다. 왕의 군대는 전례 없는 요새화된 수도원 포위 공격을 감행했고, 인명 손실은 거의 없었다. 그가 영국의 모든 군대를 파멸시키려던 악마들을 풀어놓은 사건과, 뻔뻔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한 대위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그의 계획이 결국 수포로 돌아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가끔 상인이 말을 하려고 움직였지만, 블라시는 추기경 회의장에서 종종 최고의 연설가로 활약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열정적인 웅변으로 그의 주의를 사로잡았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블라시는 두 사람의 잔을 계속 채워주었고, 마침내 세숫대야에 담긴 와인을 모두 마셨다.

라바투트는 자신이 최근 더욱 우려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고, 마침내 그 원인을 찾아냈다. 아주 미미해 보였지만, 그에게는 분명히 드러나는 무언가가 있었다. 추기경의 시선에서 새롭고 부자연스러운 빛이 새어 나왔다. 처음에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기묘한 광채였다. 블라시는 마치 두 방향에서 그를 지켜보는 듯했다. 멀뚱한 눈은 어깨 너머로, 나쁜 눈은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그 흰 눈이 자신의 안과 사방을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다고 느꼈다.

블라시는 빈 세숫대야를 들고 잠시 방을 나섰다가 와인으로 가득 찬 화려한 세발 주전자를 들고 돌아왔다. 그가 주전자를 탁자 위에 올려놓자 상인은 황급히 물러나 경계하는 듯 그에게서 몸을 돌렸다. 블라시는 못 본 척하며 병든 남자의 잔을 다시 채우고 살펴보는 데 몰두했다. 마치 와인이 정확하게 계량된 약이라도 되는 양 인지 조심스럽게 살피는 모습이었다. "조금만 더 드시면 이제 더 뚜렷해진 병세가 좀 나아질 겁니다." 블라시는 노련한 의사처럼 자신 있게 말했다. 그는 가득 찬 잔을 내밀며 침대에 누워 있는 듯한 환자에게 달래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상인은 그저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잔을 받아 드세요." 블라시는 재촉했다. "병을 잊으세요." 하지만 상인의 눈은 마치 도망칠 곳을 찾는 듯 방 안을 두리번거렸다. 촛대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블라시는 남자의 이마에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열이 나시군요."

정신 차리고 내 말을 들어. 아직 컵을 들 힘이 있을 때 마셔야 해." 블라시는 침대 위로 더 몸을 기울였다. "마셔!" 그는 손님의 무릎에 고인 소변 자국을 애써 외면하며 소리쳤다.

상인이 손에서 잔을 쳐내자 와인이 사방으로 튀었다. "저리 가! 너 같은 놈이랑은 더 이상 술 안 마셔!"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블라시는 차분하게 대답하며 자세를 바로잡고 옷에 튀었던 와인을 닦아냈다. 그는 몸을 돌려 자신의 잔을 다시 채우는 데 집중했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계속 술을 마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당신의 쇠약해지는 병세가 악화되면서 당신도 그렇게 하기를 간청하게 될 것입니다."

블라시는 컵을 들고 자신이 정해둔 자리로 돌아가 창가에 서서 남자가 마음을 추스를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블라시는 컵을 훌쩍 이며 걸으로는 불경스러운 말을 늘어놓고, 평소와 다른 자기 성찰과 불길한 예언을 늘어놓았는데, 이는 아무리 신앙심이 얇은 성직자라도, 특히 추기경이라는 직책을 맡은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었다.

블라시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마치 밤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예리하게 바라보는 척하며 전염병에 감염된 행인들의 끊임없는 행렬을 관찰하는 듯 중얼거리듯 말을 이었다. "저들을 봐, 마치 시체들의 행렬처럼 걷고 있잖아. 이미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저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발버둥 치는지 봐. 그저 애뜻한 추억과 끝없는 백일몽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지."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과거의 기억을 되새긴 후, 예지력과 회고를 결합한 다소 특이한 연결고리를 제시했다. "날이 밝으면, 길가에서 백일몽에 빠져 있는 저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될 거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별거벗은 몸을 드러낸 채, 눈앞에는 파리가 날아다니겠지. 만약 그들이 자신에 대한 진실을 안다면, 더 이상 살아있는 척하지 않고 가만히 쓰러질 텐데. 저들을 봐."

그들은 마치 살아있는 척하며 걸어간다. 죽음이 닥쳐와야 비로소 자신들의 처지를 온전히 깨닫게 될 것이다. 죽음이 세상의 본질에 녹아 있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 발버둥 쳤던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말이다. 결국 세상의 어떤 것도 신성하게 남지 않을 것이다. 파리 같은 하찮은 존재에게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다면, 희망과 꿈보다 더 큰 선이 무엇이 있겠는가?

“당신이 사제라는 걸 믿지 못하겠소.” 상인이 투덜거렸다. “당신은 누구시오?”

“내가 누구냐고요?” 블라시는 껄껄 웃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드리면 제가 누군지 아실 겁니다. 모든 건 아주 간단하게 시작됐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목을 가다듬고 말했다. “어렸을 때, 번개가 쳐서 나무 꼭대기 가지에 불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때 지어 나무를 기어오르는 개미들을 보았습니다. 개미들이 나무를 오르면서 불에 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나무껍질에서 개미들을 떼어냈지만, 더 많은 개미들이 같은 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저는 개미들이 지나가는 길에 침을 뱉었지만, 개미들은 침 주위를 맴돌며 계속해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심지어 몇 마리를 짓눌러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개미들이 위험을 감지하고 돌아서기를 바랐지만, 개미들은 죽은 개미들 주위를 기어 다니며 불길 속으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블라시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어린 시절, 그 개미들을 불길에서 구하려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나뭇가지가 떨어져 제 다리가 부러지고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 순간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내 운명의 흐름까지 바꿔놓을 수 있었지. 기사가 되려던 나를 주교로 만들었으니 말이야." 그는 손가락을 튕겼다. "개미 떼에서 대학 추기경이 되기까지, 이제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됐군." 블라시는 창문에서 돌아서서 상인을 마주 보고, 겸손하면서도 위엄 있는 모습으로 두 팔을 벌려 자신을 소개하려 했다. 하지만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옆 탁자에 부딪혔다.

꽃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잔을 떨어뜨리고 뒤로 넘어지며 금이 갔다. 그는 창틀에 몸을 기대기 전에 유리창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발치에 고정되어 있었는데, 깨진 꽃병 조각들이 너털너털한 종이꽃들 사이에 흩어져 있었다.

“개미들이 죽어가는 소리—으음— 파리들이 노는 소리—으음.” 상인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부츠를 신으며 비웃듯이 신음했다.

"신발은 필요 없어요." 블라시는 비틀거리며 그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쉬어야 해요. 뭐 하는 거예요?"

"저리 가!" 상인은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키며 "떨어져 있어!" 라고 소리쳤다.

블라시는 걸음을 멈추고 얼어붙었다. "왜 다시 옷을 입어야 하는 거죠?"

남자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땀에 젖어 형클어진 머리카락 아래로 그는 무언가를 붙잡고 있었다. 그는 블라시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면, 이 최악의 저택과 스스로를 존경받는 저명한 블라시 추기경이라 칭송하는 이 신성모독적인 자로부터 떠나야 겠소!"

블라시는 작은 파란 꽃무늬가 반짝이는 도자기 주전자와 그 안에 가득 담긴, 아직 손대지 않은 와인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는 "우리의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었다.

남자는 악화되는 상태에 따른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다. 그는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그는 추기경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제 물건들, 수레, 말, 전부 다 당신 겁니다. 저는 가야 할 곳에 저 자신만 있으면 됩니다."

블라시는 이제 그 남자를 낯선 사람으로 보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만났던 상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남자는 마치 여러 번 구타당한 듯 온몸이 멍들고 부어 있었고, 촛불의 정확한 각도에 비친 그의 기괴한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다. 전체적으로 그의 머리는 원숭이처럼 보였고, 얼굴은 꼼짝하게 움푹 들어가 있었다.

“꿀 좀 봐!” 블라시는 약간의 혐오감을 드러내며 소리쳤다. “말하는 순간 죽어버리겠군!”

다른 피난처는 없습니다. 편히 쉬세요!

상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비틀거리며 문쪽으로 향했다. "걱정 마세요. 평화롭게, 악의 무리 없이 떠나겠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열린 계단을 내려가며 발걸음을 옮길 때 돌담에 몸을 기대었다.

블라시는 그의 뒤를 따라가며 그에게 잠자리에 들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상인은 블라시의 간청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기며 그를 조롱했다. "내 집의 주인은 죽음이다! 나는 살아 있지만 죽은 것과 같다! 나는 성하와 교회를 모함하고 있다! 나는 추기경, 수도원장, 수도사들을 죽인 자다! 나는 지옥의 문을 열어젖힌다! 가서 그들의 눈에 파리를 풀어놓고 놀자!"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블라시는 대답했다. 그는 턱을 가슴에 대고 흐릿한 기억을 더듬거리다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다. “내가 그런 말을 했어?” 그는 계단에서 멈춰 서서 술잔을 옆에 툭 던졌고, 술이 옷에 튀었다. “우리가

“파리랑 놀지도 몰라?” 그는 무거운 머리를 벽에 기대고 콧방귀를 끼었다.

“아마 술에 취해 이성을 잃었나 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말조심 해야겠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상인을 뒤쫓아 가 팔을 붙잡았다. “안 돼!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겠어. 자, 방으로 돌아가야 해!”

상인은 블라시의 붙잡는 손을 뿌리치고 계단을 내려와 부엌을 가로질러 돌난로에 기대어 몸의 균형을 잡았다. 그는 자신의 소지품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고, 방 대부분을 뒤덮을 정도로 높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길 건너편에는 그의 와인 통 위에 기름 램프가 놓여 있었고, 흔들리는 불꽃은 어수선한 공간에 기묘한 분위기를 더했다. 그는 바닥에 떠 있는 그림자들을 응시하며 블라시를 간접적으로 질책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죽었을 다리가 이제는 나왔잖아.”

그런 부상이라니.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인가—아, 맞다—하늘이 너에게 좋은 일을 꾀했기 때문이겠지!

남자는 바닥에 비틀거리며 쓰러졌고, 그림자 속으로 황급히 기어갔다. 자신이 쌓아놓은 물건들로 이루어진 미로 속에서 굽이굽이 헤쳐 나갔다. 어둠이 그를 집어삼키고, 오직 그의 목소리만이 외쳤다. “생드니, 내 길을 지켜줘! 나를 지켜줘!”

블라시는 상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향해 소리쳤다. “그가 누구로부터, 혹은 무엇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려 하는 겁니까? 정신 차리세요! 역병 때문에 심하게 아프신 겁니다.” 블라시는 비틀거리며 뒤따라갔다.

그가 와인을 들이키며 소리쳤다. “돌아오라고!” 냄비와 프라이팬이 부딪히고 유리 와 도자기가 바닥에 산산조각 나면서 어렴풋이 쌓여 있던 물건들이 서로 어우러지며 대조적인 소리가 점점 커져갔다. “거기 있는 거 보여! 정신 차려!”

너 미쳤구나!

어두운 구석에서 남자가 뛰쳐나와 샅을 휘두르며 돌아섰다. 샅날이 블라시의 얼굴에서 불과 몇 도 차이로 스쳐 지나갔다. 희미하게 빛나는 샅날에 이끌려 블라시는 고개를 들었다.

상인은 두 손과 잔을 들고 사제의 얼굴에 겨누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오늘 저녁에 당신의 무덤을 파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블라시는 양보하며 대답했다. “원하시는 대로 준비해 드릴까요?”

“필요 없어! 저리 꺼져!” 상인이 쏘아붙였다.

블라시는 눈을 깜빡이고 몇 걸음 뒤로 물러선 후 상인의 침을 발밑에서 닦아냈다.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바투트 주교님. 저는 당신에게 악의를 품고 있지 않습니다.”

“사제 행세를 하며 악마와 결탁한 자로군!” 상인은 으르렁거리며 칼을 블라시에게 꽂아 넣고는 흠어진 더미 사이로 그를 밀어붙였다.

바닥에 널린 물건들.

블라시는 잡동사니에 걸려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잔을 쏟지 않았다. 상인은 서둘러 구석을 벗어나 잔해 속을 발걸음을 재촉하며 성의 뒷문으로 향하는 줄을 급히 만들어가면서 불평을 늘어놓았다. "이 모든 것, 쏟아진 향신료, 부서진 숟가락, 쓴 와인 한 방울까지도 다 가져가라! 다만 이 보잘것없는 도구만은 내 것이다!" 그는 샅을 높이 흔들며 으르렁거렸다. 그가 잠깐 뒤돌아 본 순간, 그의 광기 어린 눈빛은 가로등 불빛보다 더 강렬하게 빛났다.

"오, 정말이군요!" 블라시는 격분한 상인의 말에 동의하며 말했다. "당신 말대로 당신 겁니다! 가져 가세요."

남자는 몸을 돌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한참 동안 응시하며 여름 저녁의 단조로운 귀뚜라미 소리와 집 안의 숨 막히는 더위, 그리고 진하게 풍기는 약취를 음미했다.

블라시는 심호흡을 하고 침묵을 깨고 말했다. "그래서, 그 샅으로 뭘 하실 생각이야?"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샅날과 그릇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병으로 인한 광기에 사로잡힌 남자의 날카로운 눈빛.

상인은 마침내 불안한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아니요, 주교님. 당신은 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덤을 파헤치는 사람에게 천국이 약속될 리가 없는데, 물에 빠진 개에게 천국이 약속될 겁니다! 저는 당신을 최악의 악마로 봅니다. 경건한 가면 아래 간사한 혀를 숨기고 영원히 악행을 저지르도록 내버려 두는 악마 말입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블라시가 말했다. "나는 이전에 당신의 일을 도왔던 바로 그 추기경이다." 그는 나무 술통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술통은 바로 대성당의 지하 저장고에서 나온 것이다." 그가 유일한 관리자로 일했던 교황궁 말입니다." 그는 마치 건배라도 하려는 듯 잔을 상인 쪽으로 기울였다. "씹씹하지만, 저는 이 포도의 맛을 압니다. 흔한 포도가 아니죠. 게다가 저는 제가 신과 프랑스의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제가 역병에 걸린 사람이나 물에 빠진 개처럼 위협적으로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 제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당신이 노련한 사제에게 기대하는 모든 경건함과 예식, 그리고 기도를 다해 당신을 매장해 드리겠습니다."

상인은 흠어져 있는 상품들을 훑어보며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라도 되는 양 제안을 꼼꼼이 생각하는 듯했다. 그는 재빨리 블라시에게 시선을 돌리고 샅을 내밀었다.

위협적으로 말했다. "그래서?"

그림자를 가르고 바닥을 비추는 희미한 빛줄기를 통해 블라시는 무언가를 감지했다.

흩어진 식량 더미 속에 작은 말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다. 도자기 인형 조각들이 발에 밟혀 돌바닥 위에 흩어져 있었다. 작고 창백한 말 머리 하나가 상인의 부츠 뒤꿈치 옆에 놓여 있었다. 상인처럼 블라시도 몸을 돌려 어수선한 주변을 살피며, 마치 훨씬 더 큰 그림을 보려는 듯 머릿속으로 자신이 즉시 파악한 것들을 곱씹었다.

순환적이고 풍자적인 참조로 가득 찬, 개성적이고 불가사의해 보이는 상태. 꽤나 예상치 못한 반전이다. 그는 문득 깨져버린 도자기 장난감이 예전에 조카에게 준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가 제노바 선박에서 밀수된 물품을 비밀리에 거래하여 얻은 물건은, 아마도 바로 그의 앞에 서 있는 상인에게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쓴맛이 나는 와인 통 역시 과거 그 상인과의 간접적인 거래를 통해 얻은 것이 분명하다. 블라시는 교황궁 지하실에서 와인 통을 밀수하여 희귀 수입품과 교환했고, 그 수입품을 대학 간 물물교환이나 정치적 뇌물로 사용했는데, 그 희귀 수입품이 바로 깨진 극동 도자기 인형과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어서 말해!” 상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소리쳤다. 마치 블라시에게 악마가 꾸민 계략이나 일부러 감춰둔 계약의 세부 사항을 밝히도록 압박하려는 듯했다.

블라시는 그 남자의 심문관 같은 허세에 지친 미소와 무뎠직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리고... 나머지 단어들도 당신을 위해 쓰겠습니다."

결국, 내가 다른 말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천국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악마의 말과 악담으로? 아! 역시 내 예상대로였군.” 상인은 소리치며 삼을 추기경에게 들이밀었다. 그러나 블라시는 미동도 하지 않고 부서진 말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한때 천사보다도 빠르게 날았던, 어쩌면 너무나 힘차게 날아서 친절한 바람이 그를 휩쓸어 갔을지도 모르는 어린 소년의 기억에 잠겨 있었다.

그 소년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은 악의적이고 불경스러운 '페스티넨세'의 여파로 산산이 조각난 세상이었다.

블라시는 입술을 깨물며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안타깝지만, 이제 이 저택과 그 주변을 떠나셔야 합니다. 손에 들고 계신 도구와 가져가실 수 있는 물건은 무엇이든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말과 교황 성하의 포도주 통은 교황청의 재산이므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말은 필요 없어! 그리고 자네는 술에 빠져 죽어버려. 자네의 비열하고 용서할 수 없는 행동으로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 줘.” 남자가 으르렁거렸다.

블라시는 숨을 가쁘게 쉬며 눈썹을 치켜올렸다.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이, 부디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래, 그렇게 하지.” 상인은 삼을 내려놓으며 투덜거렸다. 그는 문 쪽으로 뒷걸음질 치더니 뒤에서 문을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방 안으로 불어와 은은한 빗냄새를 풍겼다. 멀리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다. “내가 땅을 파야 할 무덤이 하나 있거든.”

"그럴 수단을 갖고 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 하지 마라." 밤하늘의 섬광이 잠시 블라시에게 그의 모습을 실루엣으로만 보여주었다.

블라시는 상인을 안심시켰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바투트 주교님.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여기 남아서, 내 일들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군." 그는 잔을 기울여 비어 있는 잔의 양을 살폈다. "그것들에 파묻혀 죽어가고 있군."

그는 상인이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얼굴에서 쓸어 넘기고, 삼을 어깨에 메고 밤거리로 나서는 모습을 지켜 보았다. 블라시는 조심스럽게 그를 따라 문까지 가서는 무기력하게 문틀에 기대섰다. 그는 잔을 휘젓고는 떠나가는 손님을 향해 힘없이 건배를 하고는, 마시면서 얼굴을 찡그렸다.

오염된 와인을 마지막 몇 모금 마셨다. 천둥소리가 울리자 그는 한숨을 쉬었다.

상인은 블라시의 몸짓을 알아차린 듯 소리쳤다. "오이! 안녕, 악마!" 블라시는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 뒷문을 잠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가득 찬 세면대와 텅 빈 침대, 이 두 가지를 영원한 향락의 대상으로 삼을 생각뿐이었다.

성 밖에서 죽어가는 남자는 점점 더 키가 커지는 잡초 사이를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끊어진 거미줄, 너덜너덜한 누에고치, 가시덤불을 털어내면서 그는 하느님, 예수님, 성 크리스토퍼, 그리고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줄 모든 복된 순교자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길에 등을 돌린 채, 그는 저택 뒤뜰에 자리를 잡고 스스로에게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숲의 검은 지평선을 향해 비틀거리며 나아갔다. 그에게 죽음은 이제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오직 자신과 하느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개인적인 문제가 되었다. 불행히도 그의 길을 비추는 것은 오직 번개뿐이었고, 이전의 별빛은 다가오는 폭풍의 구름 뒤로 희미하게 가려져 있었다. 그리고 으르렁거리는 하늘 아래, 한 줄기 천둥 같은 빛이 소매 끝 술과 금속 단추가 달린, 정교하게 이중 박음질된 초록색 부츠 한 켤레를 드러냈는데, 그 모든 것은 검은 잡초의 거대한 바다 속에 묻혀 있었다.

결국 물에 빠져 죽었다.

추기경 블라시가 한때 명망 높았던 상인 장 바티스트 라바투와 오랜만에 직접 만나게 된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것이다. 라 바투는 프랑스에서 최고급 동아시아 수입품과 엄선된 와인을 거래하던 거물 중개인이었다.

~*~

죽음과 파괴만이 남았다. 검게 물든 전염병은 프랑스의 모든 도시와 마을로 퍼져나가, 파괴적이고 멈추지 않는 존재감으로 공동체의 심장을 마비시켰다. 미친한 농민들은 폭동을 일으키며 마을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었고, 프랑스에서는 어떤 악도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품었다. 그들이 대담하게 모든 도시에 불을 지르지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전염병은 무법자 무리 속에서 들불처럼 번져나가 그들을 검게 물들였다.

그들이 불태운 건물 들의 재 .

대역병의 발생 원인과 양상을 밝히고자 필사적이었던 필립 왕은 1348년 10월 파리 대학의 저명한 교수진을 소집했습니다.

곧바로 여러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출된 평의회가 소집되어 의례적인 비밀리에 심의를 거쳐 필리포스 1세에게 '파리 평의회 논문'이라는 문서로 그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행성 정렬, 지진으로 방출된 지하 증기, 부패하는 늪지대에서 습한 바람에 실려 온 독성 입자 등 흑사병의 여러 가지 가능한 원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원인이나 치료법을 밝히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단순한 추측의 집합체에 불과했습니다. 비록 문서의 세부 내용에 악마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악이 원인 목록에 포함되지도 않았지만), 이 임상적인 설명은 갑작스럽고 불가사의하게 나타난 이 끔찍한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였습니다. 당시 거의 1천만 명에 달하는 유럽인들은 죽음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원인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결국 죽은 자는 대부분 죽은 채로 남아 있을 뿐이었으니 까요.

흑사병은 마치 맹렬한 지옥불처럼 유럽을 휩쓸고 인류를 불태웠으며, 인류는 거센 불길 속의 어린 묘목과 같았다. 불타는 무기처럼, 악마의 병은 내륙으로 더욱 깊숙이 뻗어 나가 북쪽과 서쪽으로 향하며 오염되지 않은 지역을 잠식하고 대륙 전체를 옥죄어 왔다. 나라들은 하나둘씩, 마치 불타는 지도처럼 끝없이 휘어져 나갔다.

스페인인 폭발적인 전염병으로 인해 도시 대부분이 흙 하나 없는 무덤이라는 낯선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는 여름, 흑사병이 마을을 휩쓸었고, 숨 막힐 듯한 더위 속에서 주민들은 계절적인 더위 때문인지 갑작스러운 열 때문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더위 탓으로 돌렸겠지만, 절반은 겨드랑이에 새로 생긴 검은 반점을 단순한 땀이나 수증기로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흑사병은 빠르고 무차별적인 사형 집행자였습니다. 건강했던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었다가 해가 뜬 무렵이면 꿈쩍도 하지 못하고 죽어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오랜 가뭄과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시원하고 깨끗한 물은 귀한 액체 은과 같았습니다. 불행히도 많은 공동 우물은 썩어가는 이웃의 시체로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대인들이 물을 더럽혔다고 비난했고, 또 어떤 이들은 무슬림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기독교 국가에 닥친 이 재앙적인 사건 속에서 악마를 탓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떠날 힘조차 없는 노인들에게는 우물물을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엄두를 낼 수 없었기에, 그들이 갈망하던 물처럼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병에 걸리거나 탈수 증세를 감수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과 필사적인 마음에 그들은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잔을 들고 깊이 기도한 후, 도시의 흙 하나 없는 공동묘지 에서 이웃들과 함께했습니다 .

다른 지역에서도 영국의 도시와 마을들은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엄격한 항만 규제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병은 마치 밤에 도둑처럼 몰래 퍼져나갔습니다. 수로를 따라 퍼져나가 런던과 브리스톨 항구를 스며들었습니다. 일단 정착하자 전염병은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의사, 사제, 정치가들은 마치 무덤으로 뛰어드는 듯했고, 마치 궤양에 걸린 레밍 떼 처럼 도시 인구의 절반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1349년 여름, 흑사병은 북쪽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영국 시골을 휩쓸고, 인구 밀집 도시인 노리치와 체스터를 지나 아일랜드의 웨クス퍼드까지 진격했습니다 . 그해 말에는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를 포함한 이 지역 최북단 도시들이 모두 흑사병에 감염되었습니다 .

분홍빛 림프절 주위에 검은 고리가 생기고 , 주머니 가득 꽃다발을 넣어 부패 를 쫓아내려던 유럽인의 3분의 1 이상이 재채기를 하다가 쓰러져 죽었다.

시간은 죽어가는 사람의 눈동자처럼 굴러갔고, 날들은 필연적인 죽음의 가쁜 숨결처럼 따라왔다.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 마을을 피해 다녔다. 대신 그들은 버려진 들판을 살살이 뒤지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숲에서 사냥감을 찾고, 산골짜기 시냇물을 헤매며 겨울을 날 만큼의 식량을 필사적으로 모으려고 애썼습니다 . 가족들은 문 뒤에 숨어 문 바깥쪽에 붉은색 표시를 하고, 안쪽에는 무거운 돌을 쌓아 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농기구는 무기로 쓰일 수 있도록 옆 벽에 기대어 놓았습니다. 마침내 겨울이 왔을 때, 프랑스 중부 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문이 침입 경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느라 천장이 안전하다는 사실은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문석의 악마들은 블라시 추기경이 목표로 삼았던 프랑스 칼레와 그곳을 점령한 영국군에게 결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악마에 홀린 듯한 어둠에 사로잡힌 이 날아다니는 카메라 조각상들은 프랑스의 저녁 하늘을 배회하며, 퍼져나가는 안개와 함께 사방으로 퍼져나가 마침내 무라트 마을 외곽에 이르러 초가 지붕을 부수고 파괴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무라트 마을을 휩쓸어버린 그 재앙의 심각성은 지옥의 하수인들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제대로 가늠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 그들은 바로 타르타로스의 위험한 영역에서 온, 하데스의 궁전에서 감독관 역할을 하는 노련하고 경험 많은 악마들이었다. 그들은 지옥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끔찍한 고통을 꾸며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오래전에 죽은 성당 천장의 기괴한 조각상들을 거느린 이 악마들은 ...

단지 루시파엘의 저주받은 군단이 만들어낸 영적인 허상에 불과했다. 돌로 만든 형상들은 이전의 살과 뼈로 이루어진 존재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쉽게 다음과 비교될 수 있다. 그것은 단지 '날아다니는 돌'에 불과했으며, 악마의 영혼이 부분적으로 손상된 문돌을 통해 사악한 영혼을 던져 넣은 것이었습니다. 악마의 진짜 모습은 여전히 지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는 대봉인을 구성하는 세 개의 문돌 중 두 개만이 '열려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칸첼로 수도원 문돌이 닫혀 있는 한, 대봉인이 아무리 약해졌더라도 그 기능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신의 뜻에 따른 목적이었으며, 이 지하 세계의 악마들은 육체가 없는 빙의된 영혼, 유령, 푸른 악마, 인큐버스, 서큐버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악한 존재들의 형태로만 세상을 괴롭힐 수 있었습니다. 지옥에 던져진 수많은 인큐버스와 서큐버스 중에서 루시파엘은 서큐버스 여왕으로 군림하며, 가장 악랄한 고문자이자 영적인 음란자였습니다. 그녀는 잠들어 있고 무방비 상태인 인간들에게 자신의 모습과 사악한 욕망을 투영하고, 엘조와 엘리우드의 자손들을 소환하여, 그 육신의 살과 뼈로 이루어진 존재들을 세상 곳곳에 흩어놓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안전을 지켜줄 모성애는 거의 없었고, 오히려 나사로처럼 그들을 스스로 살아남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거나,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첫 햇살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지옥은 만족하지 못했다. 또 다른 지옥 같은 한 해가 지나가는 동안, 흑사병은 마치 장막처럼 프랑스 중부를 뒤덮었다. 그리고 그 참혹한 시기의 가장 암울한 순간들 속에서 수도원의 맹렬한 안개와 떠돌아다니는 기괴한 석상들은 점점 더 넓은 지역에 걸쳐 침입과 파괴를 자행했다. 그러던 중 1350년 말, 빅쉬르세르와 생플루르 마을 주민들은 까마귀 떼처럼 밤하늘을 뒤덮은 키메라 같은 악마들의 공포를 목격했다.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지만, 적어도 한 명의 희생자의 얼굴이라도 남아 있을 법한 공포의 흔적은 죽은 사람들의 시신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머리가 없는 시신은 단 하나도 없었고, 흩어진 유해 속에서 두개골 하나만 발견되었다. 이러한 대량 학살은 목격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결국 모든 도시와 마을은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몰락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풍겨오는 악취는 전염병에서 살아남은 이주민들에게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 즉 모든 전염병의 근원지를 피하는 길을 선택하라는 경고와 같았습니다.

불쾌한 냄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얗게 바싹 마른 뼈에서 살점과 옷가지가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며, 지옥의 교묘한 계략 중 하나가 지나가는 날들을 알렸다. 단 한 마리의 새, 악마가 되살린 중국 비둘기 한 마리에서 시작된 대역병은 인류의 상당 부분을 멸망 시켰다. 갑자기 닥쳐온 역병은 마치 사그라지는 바람에 날리는 재처럼 사라졌다. 마치 휘둘러진 칼이나 마구잡이로 걸린 악의 주문처럼, 역병의 광범위한 죽음의 물결은 유럽 곳곳을 휩쓸고 지나간 후 다시 심장부로 되돌아왔다.

중국. 죽은 자들의 눈에서 모든 동전이 모이고 스틱스 강의 마지막 물결이 고요해졌을 때, 흑사병은 2천4백만 명의 유럽 남녀노소를 흙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중국에서는 3천5백만 명의 영혼이 사라졌습니다. 인도와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 모두 루시퍼엘의 검은 사과 수확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조한 숫자만으로는 이러한 인명과 역사적 규모를 적절하게 비교할 수 있는 마음이 항상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관점을 적용해 보면, 만약 모든 유럽인의 시신을 한데 모아 공동묘지에 묻었다면, 그 깊이는 3,600 마일을 넘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만약 모든 중국의 시신을 같은 무덤에 묻었다면, 그 깊이는 지구 지각 속으로 거의 5,300마일에 달했을 것입니다.

인류에게 대역병은 6피트 깊이의 구덩이보다, 헤아릴 수 없는 공포보다 더 깊은 곳, 지옥까지 뻗어 있었고, 바로 그곳에서 처음 생겨났습니다.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이 역병은, 중국 중부 삼협의 비룡사에서 온 도교 고위 사제와 그가 사로잡은 기괴한 신상이 감히 지옥으로 통하는 세 개의 봉인 중 첫 번째 봉인을 열었을 때, 당시 알려진 세계의 절반을 덮쳐 죽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역사의 어두운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으며, 불행한 일들은 언제나 그렇게 되곤 합니다.

[제12장 끝]



이 문학 작품은 창작 되었습니다. d는 오직 ~ 에 헌정하기 위해

에드거 앨런 포 (1809-1849)

— 그의 업적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기를 —



~[고딕노블.org](https://www.gothicnovel.org)~